

세계적인 생태도시 순천으로 놀러 오세요



▲제26회 순천만갈대축제 개최

황금빛 갈대의 향연… 제26회 순천만 갈대축제 개최

순천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제26회 순천만 갈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순천만, 야생의 생명을 품은 치유의 공간’을 주제로, 시민과 가족이 함께 만들어 가는 생태문화축제로 추진된다.

개막행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순천만의 생태와 문화를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탐방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안내하는 △순천만 마을탐방 △흑두루미 관찰 체

험 △순천만 소리명상 △새벽 선상 투어 △순천만 별빛 여행 △갈대울타리 소원글 쓰기 △희망농업단지 벼베기 등 자연과 교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시는 축제 기간 중 ‘블루카본 포럼’과 ‘순천만 흑두루미 국제심포지엄’을 함께 개최

하여, 국내·외 생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순천시가 국내 기초지자체 최초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가입한 이후 열리는 첫 학술행사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 갈대축제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태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축제”라며, “시민과 탐방객 모두가 자연과 공존하는 순천의 가치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가입한 한국 최초의 기초지자체로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을 실천하는 세계적인 모델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생태복원과 보전 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충북농기원,가을배추 수확전 현장기술지원 강화(가을배추 무름병 발생 포장청주시미원면)

충북농기원, 가을배추 수확 전 현장기술지원 강화

무름병 피해 최소화·안정적인 수확 지원 총력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은 본격적인 가을배추 출하 시기를 맞아 안정적인 수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가을배추는 청주시 미원·낭성면과 괴산군 문광·불정면을 중심으로 무름병이 일부 발생했으나, 지난 19일 이후 기온이 낮아지면서 확산세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기상청에 따르면 충북 가을배추 생육기인 8~10월 평균기온은 25.4℃로 평년보다 2.1℃ 높았고, 강수량은 461.5mm로 평년대비 11.8mm 많았다. 특히, 가을배추 결구기인 9~10월 잦은 강우로 배수불량 포장 위주로 무름병 발생이 있었다.

기술원은 수확 시기까지 병든 식물체를 즉시 제거하고, 포장 내 통풍과 배수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생육이 약한 포장은 부직포 덮기나 요소 비료 염면시비 등으로 병해 피해를 줄이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농업기술원 여우연 과장은 “지속적인 강우로 무름병 발생이 많았으나, 최근 기온이 하락하면서 병 확산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라며 “수확 전까지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해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무안군-신세계푸드, ‘무안양파빵 32만개’ 판매 성료

3개월간 전국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무안양파 200톤 소비



▲지난 7월 무안군-신세계푸드 협약식에서 무안양파빵제품을 살펴보는 김산군수

파 함박스테이크피자 △무안양파 바게트피자 △무안양파 크림 치즈빵(트레이더스) △무안양파 치즈빵(트레이더스) 등 총 7종으로,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메뉴에 지역 농산물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김산 군수는 “신세계푸드와의 협업은 대형 유통망을 통해 좋은 품질의 무안양파를 활용한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선보임으로써 지역 상생 협업의 모범사례가 됐다”며, “이번 성과가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무안양파’의 전국적 브랜드 인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통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소비 촉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구미시, 벼 깨씨무늬병 피해 확산 따른 긴급 피해조사 실시

구미시는 벼 수확기를 앞두고 지역 전역으로 확산 중인 벼 깨씨무늬병이 농립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긴급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토지주소지 읍면동에서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병무늬 면적률이 51% 이상이면서 피해면적이 재배면적 대비 30% 이상인 농가는 지원 대상이 되며, 1회 이상 방제 이력과 수확



량 자료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단가는 피해를 기준에 따라 △30~80% 미만은 농약대 82만원/ha △80% 이상은 대파대 372만원/ha로 차등 지급된다. 생계비 지원, 농업정책자금 상

환유에 및 이자감면, 경영자금 융자 등 추가적인 복구 지원도 병행된다.

또한 피해벼 정부매입을 원할 경우 전량 매입할 예정이다.

벼 깨씨무늬병은 여름철 고온과 잦은 강우로 인한 양분 고갈, 일조량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피해가 심할 경우 미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3만6천ha 이상이 피해를 입어 지난해 대

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구미시에서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6%인 400ha(10월 1일 기준) 이상에서 심각한 피해가 확인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경우 피해 평가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미시에는 2,100여 농가(2,618ha)가 가입했으며, 이 중 449건(818ha)이 접수됐다(10월 16일 기준).

시는 향후 피해벼 벼짓을 쟁기나 로터리로 갈아엎어 병원균 월동 밀도를 낮추고, 감염 종자 사용 금지와 병해 대응 교재 배부, 영농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인제군,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인제군은 2025년 가을철부터 2026년 봄철까지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농촌 지역의 산물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병해충 발생 최소화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파쇄를 통한 퇴비화로 농업 분야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병해충 번식

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파쇄지원단’을 직영으로 운영해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처리를 무상으로 대행한다.

처리 가능한 품목은 줄기, 뿌리 등 식물 잔재물과 콩대, 갯대, 고춧대 등이 해당되며, 굵은 나뭇

가지나 덩굴류, 노끈 등 파쇄기 작동에 방해되는 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사업은 11월부터 2026년 4월 까지 기상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잇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기까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지속가능한 食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